

■ 자양라이프아카데미 3기 Syllabus

∞ 12월 26일 수요일(1회) - 겨울 캠프(1일차)

10:00-12:00 **우리는 왜 질문하지 않을까?**

- 담당: 윤원철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 필독도서
 - 고재학, 『유대인 교육에 답이 있다』 일곡문화재단
- 개요: 한국인과 유대인은 나란히 최고의 우수한 민족으로 꼽힌다. 많은 이들이 그 우수성의 근원을 두 민족의 높은 교육열에서 찾는다. 그러나 한국인과 유대인의 교육·학습법은 천양지차이다. 두 민족이 나란히 우수한 자질을 지녔으면서도 학문이나 정치, 사회, 경제, 과학기술 등의 제반 분야에서 성취한 세계적 수준의 업적으로 보면 크게 차이가 나는데, 그 주요 원인을 교육·학습법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그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재 한국의 교육현장의 양상을 반성적으로 살펴보고 바람직한 교육·학습법을 모색해본다.
- 생각해볼 문제
 1. 나는 수업이나 과제 수행 등 학업활동에서 과연 얼마나 주체적으로 “물음”을 제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적 탐구를 진행하는가?
 2. 혹시 “물음”을 묻는 활동이 저조하다면, 언제부터 왜 그러했는지 진단해보자.
 3. 수업이나 과제수행 등의 학업활동에서 토론방식을 취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다양한 토론 방식이 있을 터인데, 각각의 장단점을 짚어본다면?

13:00-15:00 **시간관리**

- 개요: 현대 경영자본의 중요 요소인 시간에 대하여 중요성을 성찰하고, 효과적인 시간관리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론을 습득한다. 또 한 체계적인 본인의 시간관리를 통하여 하루하루를 알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습관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15:00-18:00 **수련생의 다짐 내재화 _ 팀빌딩**

- 개요: 자양라이프아카데미 수련생의 입문과정에서, 수련생의 기본적인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라이프아카데미의 핵심가치인 다짐에 대한 학습 및 인지를 제고합니다. 또한, 액티비티 활동을 통해 서로 친해지고 유대감을 제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를 통해, 라이프아카데미 수련생의 다짐에 대한 이치를 마주할 수 있는 특정한 상황에서의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 앞으로의 가치 판단에 준거를 형성하기를 기대한다.

19:00-22:00 **봉사활동 기획 및 Unit 구성**

80 12월 27일 목요일(2회) - 겨울 캠프(2일차)

08:00-15:00 크리케이션 창의성 질문법, 효과적인 독서법, 열린토론 진행법

- 담당: 심재우 (SB컨설팅 대표, 크리케이션 창의성질문 개발자)

15:00-18:00 Module Intro - **읽이란 무엇인가 - 읽을 수 없이 마음을 강타하는 이야기들**

- 담당: 유성환 (자양라이프아카데미 담임)

- 필독도서

테드 창, 『당신 인생의 이야기』, 김상훈 옮김 (2016) 엘리

- 개요: 자양라이프아카데미는 전인 교육 실현을 목표로 하는 학습자 주도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지식은 객관성을 가정하지만 지식이 구성되는 과정은 의외로 객관적이지 않다. 지식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항상 전후의 지식과 함께 계열을 이루고 분류를 통해 체계화된다. 그러나 분류에는 항상 배제가 따르게 마련이고 따라서 지식의 선택과 배제에는 권력의 문제가 개입한다. 지식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읽의 첫 출발이다. 제 3기의 출범을 알리는 동계 캠프에서는 테드 창 의 단편소설 세 편을 같이 읽으며 토론하고 고민하면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자 한다. 캠프의 필독 도서인 『당신 인생의 이야기』에 수록된 단편 〈이해〉에서는 인식과 이해의 문제를, 〈네 인생의 이야기〉에서는 언어와 의사소통의 문제를,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소고: 다크멘터리〉에서는 하나의 주제에 존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문제를 각각 자유롭게 토의해 보자.
- 독서 관리 질문: 작품 『이해』에서 주인공과 그와 동일한 수준에 오른 다른 상대는 세계관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그런 차이는 불가피하게 치명적인 대결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까?
- 생각해볼 문제
 1. 인간의 지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마침내 궁극의 수준에 도달하는 과정을 치밀하게 묘사한 단편 〈이해〉에서 대립하는 두 주인공이 원하는 것은 왜 서로 다를 수 밖에 없는가? 궁극의 게슈탈트 전환은 동양에서 말하는 격물치지(格物致知)와 무엇이 같고, 또 무엇이 다른가?
 2. 칼 세이건이 저술한 SF 소설 『콘택트』에서는 외계인이 친숙한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반면, 테드 창 의 단편 〈네 인생의 이야기〉에서는 인식체계와 의사소통 구조가 전혀 다른 헵타포드와 인간 간의 의사소통, 그리고 그에 따른 결정성의 문제가 중요한 주제로 부각된다. 인식체계가 전혀 다른 존재 간의 의사소통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우리와는 인식체계가 전혀 다른 존재와 조우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3.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소고: 다크멘터리〉에서 육체의 매력을 신경회로 조작으로 제거하는 시도는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의 충돌을 불러 일으킨다. 하나의 주제에 이처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런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야 할까?
 4. [바칼로레아 발제] 우리가 하고 있는 말에는 우리 자신이 의식하고 있는 것만이 담기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말이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는 것인가? 이때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말은 결국 우리가 의식하는 것 이상을, 혹은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을까?

19:00-22:00 감사체험 & 50감사 - (사)행복나눔125

☞ 12월 28일 금요일(3회) - 겨울 캠프(3일차) & 입학식

09:00-12:00 Science No.1 - 근대과학의 탄생, 이집트/그리스인, 갈릴레오, 뉴턴이 되어 보기
Project 소개 (고객, 상품, 차별화, 이익의 흐름)

- 담당: 권희민 (자양라이프아카데미 선생님)

13:00-16:00 강점코칭

- 담당: 윤여순 (자양라이프아카데미 선생님)

16:30-17:30 입학식: 축하
김재철 이사장님, 권희민 선생님
윤여순 선생님, 윤세웅 교장선생님

☞ 1월 05일 토요일 (4회): 자양정신(J-SPIRIT)

09:10-12:30 Business Case Study Intro - CEO Insight & Finance (1)

- 담당: 윤세웅 (자양라이프아카데미 교장), 장진원 (한영회계법인 부회장)
- 개요: 케이스 스터디는 증명된 학습법 중 하나로 특히 비즈니스에 관하여서는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 정설이며 하버드대학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에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케이스 스터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2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다. 1) 케이스에 대한 철저한 준비, 2) 동료의 발표를 경청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 반드시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진행되고 있는 토론의 내용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 다음의 세가지 전제조건에 동의를 해야 한다. 1) 토론 중에 다른 멤버로부터 배울 수 있는 만큼 자기도 남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2)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평가 받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효과적인 소통방법의 개선은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본기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 첫번째 시간은 케이스를 만드는 방법과 멤버들간의 효율적인 회의 방법을 토론해 본다. 동시에 기업과 업계를 분석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재무 분석에 대한 기본기를 배운다. 화이낸스 베이직은 두 번에 걸쳐서 강의와 케이스를 통해서 분석한다. 이 케이스를 통해서 기업 재무제표의 분석, 자산, 부채, 자본 등 기업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용어와 의미를 배우고 기업의 재무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반복을 통해서 익힌다. 화이낸스 케이스는 SK그룹의 고문으로 계신 장진원교수를 통해서 기업에서 통용되는 용어와 분석방법을 실무적으로 접근한다. 아울러 재무가 갖는 의미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도 토론해 본다.

13:30-15:00 3분 스피치 - 내가 생각하는 바른인재란? (4명)
우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 사회적 이슈 (2기 신문스터디)
동료수업 (2기 김승연)

15:00-18:00 **Module: 동서양 인성 - 동양과 서양, 세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

- 담당: 유성환 (자양라이프아카데미 담임)
- 필독도서
러처드 니스벳, 『생각의 지도』, 최인철 옮김 (2004) 김영사
- 개요: 자양라이프아카데미는 그 설립 취지인 전인 교육 실현을 위해 초반부 4주 간 수강생들이 200 페이지 이상의 깊이 있는 도서를 읽고 집중적인 발표와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30회에 걸친 프로그램 기간 동안 성실하고 능동적이면서 치밀한 독서 습관을 배양하고자 한다. **자양정신 주간**의 첫 번째 필독 도서인 『생각의 지도』를 통해서 동양과 서양의 사고방식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심리학적으로 생소한 동서양인들의 심리적 차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와 같은 인식을 동양과 서양이 조우한 근대 이후의 역사와 향후 동양과 서양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적용·투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 독서 관리 질문: 새로운 세기, 동양과 서양 문명은 서로 융합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들 두 문명은 지난 세기와 마찬가지로 충돌할 수밖에 없을까?
- 생각해볼 문제
 1. 책에 따르면 동양인은 동사를 통해 세상을 보고 서양인은 명사를 통해 세상을 본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경향은 아이와 엄마의 대화를 통해서도 관찰되는데 그 구체적인 예는 무엇인가?
 2. 동양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과 서양의 “독립성”(independence)는 개념 상 어떻게 다른가? 이와 같은 차이는 각 사회에서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 차이는 각각 무엇인가?
 3. 저자는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마침내 수렴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중 문화적(bicultural) 사고 방식이 인류의 교류사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아울러 동서양 문명의 융합과 충돌을 통해 출현하게 될 새로운 문명은 어떤 양상을 보일까?
 4. 동양 문명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동양 문명은 정말로 개인보다는 집단의 조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그 역사적, 환경적 이유는 무엇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또 무엇인가? 아울러 동양 문명 저류에 흐르는 다양성은 어떻게 발현되고 또 억압되었나?
 5. **[바칼로레아 발제]** 프랑스 작가 쥘 르나르(Jules Renard: 1864-1910년)는 “예술에 있어서는 남과 다르게 해야 하고 도덕에 있어서는 남과 같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도덕은 관습들의 총체에 불과한가?

89 1월 12일 토요일(5회): 자양정신(J- SPIRIT)

09:10-10:40 Elective 1: 관찰하고 사색하고 기록하라

- 담당: 김영주 (작가)
- 분야: Art(1)
 - 개요: 글쓰기 훈련은 작가 지망생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세상을 관찰하고 사색하며, 이를 통해 나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다. 단순한 독백이나 일기 형식에서 벗어나 누군가와 그것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좀 더 설득력 있게 전달하려면 어떤 기본기가 갖춰져야 할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글을 쓰는 행위는 서로 어떤 연관이 있을까.
 - 생각해볼 문제
 1. 나는, 지금, 무엇에 흥미 또는 호기심을 갖고 있는가?
 - 간단한 과제: 어느 일상의 하루 중 자신이 보낸 2시간을 서술하라. 특별할 수도, 평범할 수도 있는 시간 무엇이든 상관없다. 분량은 자유. 일기가 아닌 에세이 형식. 주관적 감상이나 생각이 들어가도 되지만 벌어진 상황은 ‘논픽션’이어야 한다.

11:00-12:30 Elective 2: 예술과 나의 인생

- 담당: 윤여순 (자양라이프아카데미 선생님)
- 분야: Art(2)
 - 개요: 예술은 무엇인가? 예술은 재능이 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전유물인가? 예술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사치인가? 우리 주변에 예술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으며 나는 얼마나 그것을 느끼고 향유하고 있는가? 예술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존재로 어떤 의미로 경험되는가? 예술은 한마디로 무엇인가? “예술은 나만의 눈으로 세상을 달리 보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인재로 사회에서 활동할 것인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무엇인가? 향후 여러분은 예술을 어떻게 활용하겠는가?
 - 생각해볼 문제
 1. 나에게 예술은 무엇인가?
 2. 나는 예술과 얼마나 만나고 있는가?
 3. 나는 내 삶에 예술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

13:30-15:00 3분 스피치 - 내가 생각하는 바른인재란? (4명)
우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 사회적 이슈 (9조)

15:00-18:00 **Module: 인문학 사고 - 시공의 한계를 초월한 콜럼버스와 이순신의 만남**

- 담당: 유성환 (자양라이프아카데미 담임)
- 필독도서
김경집, 『생각의 융합』 (2015) 더숲
- 개요: 자양라이프아카데미는 그 설립 취지인 전인 교육 실현을 위해 초반부 4주 간 수강생들이 200 페이지 이상의 깊이 있는 도서를 읽고 집중적인 발표와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30회에 걸친 프로그램 기간 동안 성실하고 능동적이면서 치밀한 독서 습관을 배양하고자 한다. **자양정신 주간**의 두 번째 필독 도서인 『생각의 융합』에서는 최근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융합적 사고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인문학적 통찰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이 책을 통해 수강생들은 인문학이 이전까지의 단편적인 지식들을 연결해줄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미래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방법을 엿보게 될 것이다.
- 독서 관리 질문: 저자는 생산성과 효율의 프레임에 인문학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저자가 말하는 생산 구조의 변화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 생각해볼 문제
 1. 1492년 서구 인식의 지평을 넓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 1451-1506년)와 1592년 동아시아 역사의 판도를 바꾼 이순신(李舜臣: 1545-1598년)을 100년이라는 시간의 격차와 동양과 서양이라는 공간의 차이를 초월하여 매개하는 두 가지 세계사적 요인 혹은 연결고리는 무엇인가?
 2. 에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1906-1995년)가 생각한 서양 존재론의 심각한 오류는 무엇인가? 또한 이와 같은 오류를 염두에 둔다면 드레퓌스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울러 근대 이후 서양의 전세계적 지배를 가능하게 한 것은 정말 개인의 탁월성을 강조하는 서양의 개인주의의 산물이었을까? 서양문명의 근저를 이루는 철학과 사상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3. 생산성과 효율의 프레임의 관점에서 볼 때, 인문학이 반드시 “가치 창조”의 패러다임에 동원되어야 할까? 인문학의 본질에서 그 존재가치를 찾을 수는 없을까?
 4. **[바칼로레아 발제]** 독일 철학자 칼 야스퍼스(Karl T. Jaspers: 1883-1969년)는 “철학에서 질문이 해답보다 더 본질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오늘날 철학이 가지는 가치는 여전히 질문에 있는가? 그렇다면 현대의 맥락에서 제시되어야 할 질문은 무엇일까?

☞ 1월 19일 토요일(6회): 자양정신(J- SPIRIT)

09:10-12:30 Science No.2 - 단진동, 음악, 감각의 세계(청각, 촉각 - mechanical sensor)
Project 1 - 고객의 spec. 에 대한 연습

➤ 담당: 권희민 (자양라이프아카데미 선생님)

13:30-15:00 3분 스피치 - 내가 생각하는 바른인재란? (4명)
우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 사회적 이슈 (8조)

15:00-18:00 Module: 통섭적 사고 - 우리 모두의 지속 가능한 자유와 책임을 위하여

➤ 담당: 유성환 (자양라이프아카데미 담임)

➤ 필독도서

에드워드 윌슨, 『인간 존재의 의미』, 이한음 옮김 (2016) 사이언스북스

➤ 개요: 자양라이프아카데미는 그 설립 취지인 전인 교육 실현을 위해 초반부 4주 간 수강생들이 200 페이지 이상의 깊이 있는 도서를 읽고 집중적인 발표와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30회에 걸친 프로그램 기간 동안 성실하고 능동적이면서 치밀한 독서 습관을 배양하고자 한다. 자양정신 주간의 세 번째 필독 도서인 『인간 존재의 의미』는 135억 년 전의 빅뱅, 38억 년 전의 생명체의 출현에서 7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 종의 출현에 이르는 과정을 제시하면서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복잡한 문화 구조를 생성해내는지 설명한다. 다른 동물과는 달리 문화라는 새로운 생존의 도구를 가능하게 한 인지 혁명의 과정을 함께 살펴 본다.

➤ 독서 관리 질문: 저자는 집단학습이 문화의 성립과 형성을 추동한 결정적인 동인이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집단학습의 특징은 무엇이며 집단 학습이 호모 사피엔스에 이와 같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 생각해볼 문제

1. 인간 존재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것보다 더 단순하다면 다른 생물종과 비교하여 자연을 통제할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을 갖춘 인간이 종으로서 짊어져야 할 책임은 무엇인가?
2. 수렵·채집 생활의 특징은 무엇이며 약 1만 년 전 시작된 농경·목축에 비해 거의 20배 가까이 지속된 수렵·채집 생활이 종의 집단 기억 속에 남긴 것은 무엇인가? 현대인의 심층에 꼬리뼈처럼 자리잡은 수렵·채집의 흔적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
3. [바칼로레아 발제]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인류학자인 마르셀 모스(Marcel Mauss: 1872-1950 년)는 “문명화되지 않은 민족은 없다. 다른 문명을 지닌 민족들만 있다”고 말했다. 다른 문명보다 더 우수한 문명은 존재하는가? 만일 문화 상대주의를 인정한다면 오늘날 야만성의 개념을 정확히 정의 내릴 수 있는가?

☞ 1월 26일 토요일(7회): 자양정신(J- SPIRIT)

09:10-10:40 Elective 1: 기술과 문화의 융합_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힘

- 담당: 이동만 (카이스트 전산학부 석좌교수)
- 분야: Technology(1)
- 생각해볼 문제
 1. 융합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
 2. 4차 산업의 진정한 의미는? 1,2,3차 산업과 무엇이 다른가?

11:00-12:30 Elective 2: 남이섬이 '남의 섬' 된 이야기

- 담당: 민경혁 (남이섬 부사장)
- 분야: Career(1)
- 개요: 망해가던 유원지가 어떻게 나눔과 연대를 통해 국제 관광지로 탈바꿈할 수 있었는지 실사례 별로 추적해 본다. 관광지에서 콘텐츠는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인문학적 공감력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좋은 관광지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본다.
- 생각해볼 문제
 1. 일상이 관점 변화를 통해 관광 콘텐츠가 된 사례가 주위에 있는가?
 2. 여행은 좋은 곳으로 가는가? 다른 곳으로 가는가? 다르기만 해서도 가는가?
 3. 산업으로서의 관광은 무엇인가?

13:30-15:00 3분 스피치 - 내가 생각하는 바른인재란? (4명)
우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 사회적 이슈 (7조)

15:00-18:00 Module: 미래 전망 - 과학혁명 이후의 인류의 미래에 대한 대담한 질문

- 담당: 유성환 (자양라이프아카데미 담임)
- 필독도서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조현욱 옮김 (2015) 김영사
- 개요: 자양라이프아카데미는 그 설립 취지인 전인 교육 실현을 위해 초반부 4주 간 수강생들이 200 페이지 이상의 깊이 있는 도서를 읽고 집중적인 발표와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30회에 걸친 프로그램 기간 동안 성실하고 능동적이면서 치밀한 독서 습관을 배양하고자 한다. **자양정신** 주간의 네 번째 필독 도서인 『사피엔스』에 따르면 인류는 문명을 형성하자마자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근동과 지중해 전역에 국제적 문명을 꽃피웠다. 개별 사회 혹은 개별 국가에만 적용되는 지역적인 특징 대신 문명사 전체를 관통하는 문명적 특징을 제시하고 평가함으로써 저자는 인간이 스스로 보유하게 된 막강한 힘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지 우려한다. 저자가 지적한 바, “우리는 멸종할 것인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인가?”

- 독서 관리 질문: 기술은 가치 중립적이다. 신기술이 인류의 삶을 변혁시킬 수는 있지만 인류의 존속을 위한 가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줄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 생각해볼 문제
 1. 놀라운 신기술을 개발하고 확보하는 것은 세계 많은 국가들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그러나 놀라운 신기술을 가진 사회가 반드시 인류를 이끌 새로운 비전이나 가치관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는 아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비전이나 가치관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일까?
 2. 인류 역사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제국의 본질은 무엇인가? 저자가 제시하는 새로운 지구제국에 대한 자신만의 평가와 전망을 제시한다면 어떤 평가와 전망이 가능할까?
 3. 가족과 지역사회, 민족과 국가와 같은 “상상의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소멸되고 붕괴될 수밖에 없는가? “상상의 공동체” 이후의 세계는 우리를 어떤 형태의 삶으로 이끌 것인가? 새로운 형태의 삶에서 우리는 보다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4. **[바칼로레아 발제]** 어떤 사고나 이론을 유토피아적이라고 할 때 대개 그것을 깎아 내릴 의도인 경우가 많다. 사실 유토피아는 일상의 언어에서 실현 불가능한 제안이나 위험하지는 않으나 쓸모 없는 공상으로 통한다. 그러나 플라톤(Plato: 기원전 427-347년), 토마스 모어(Sir Thomas More: 1478-1535년), 생시몽 백작 클로드 앙리 드 루브루아(Claude Henri de Rouvroy, comte de Saint-Simon: 1760-1825년)같은 사람들이 순전히 무의미한 이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면 그들이 유토피아를 제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 2월 02일 토요일(8회): 기원(ORIGIN)

09:10-12:30 Business Case Study - CEO Insight & Finance (2)

- 담당: 윤세웅 (자양라이프아카데미 교장), 장진원 (한영회계법인 부회장)
- 개요: 케이스 스터디 두번째 시간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플랜, 플랫폼 홈까지 배워봅니다. 간략한 케이스로 네이버와 구글의 수익모델에 대해서 알아보시다. 후반부 강의는 지난 강의에 이어 장진원 교문의 Finance (2), 그리고 재무제표 실습이 진행됩니다. 하버드 케이스를 살짝 맛보길 기대하며 앞으로 진행되는 케이스 발표에도 케이스 회사에 대한 화이낸스, 재무제표 분석을 해보길 바랍니다.
- 첫번째 케이스 과제: Fast Fashion - 유니클로, 자라, H&M 집중분석
 1. 각 조별 20분 발표 분량 준비(질의응답 포함) - 회사별 3개조씩 준비
 2. 기본사항(비즈니스모델&재무현황) + 중점사항(전략&이슈&지속 가능성)
 - 1) 세 브랜드 각각의 차별화된 전략은 무엇인가?
 - 2) 어떤 전략으로 세계시장 그리고 한국시장에서 성공했을까?
 - 3) “빨리 빨리”를 외치던 한국기업은 Fast Fashion에서 글로벌화 하는데 어떤 이슈가 있을까?
 - 4) Fast Fashion은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까?

13:30-15:00 3분 스피치 - 내가 생각하는 바른인재란? (4명)
우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 사회적 이슈 (6조)

15:00-18:00 Module: 세계사 전반 - 고대에서 현대까지 “여섯 번의 공간 혁명”

- 담당: 유성환 (자양라이프아카데미 담임)
- 필독도서
미야자키 마사카쓰, 『공간의 세계사』, 오근영 옮김 (2016) 다산초당
- 개요: 자양라이프아카데미의 역사와 철학 모듈은 앎을 통한 자아의 확장이다. 지식의 증대는 단순히 개인의 역량 강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은폐되어 왔던 불합리한 요소를 그 공고한 보호색으로부터 구별해낼 수 있는 비판적인 안목을 배양하는 데 있다. 그 첫 번째 기획인 **기원(ORIGIN)**의 첫 번째 필독 도서인 『공간의 세계사』를 통해 서양의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광범위한 시기를 몇 개의 키워드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저자는 “여섯 번의 공간 혁명”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5000년 인류사의 다양한 사건들을 설명한다. 세계사 전반에 걸친 시간과 공간의 확장과 연결을 살펴봄으로써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공간적 좌표를 그려보는 기회를 가져보자.
- 생각해볼 문제
 1. “축의 시대”(Achszeit)로 불리는 정신혁명을 저자는 다섯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 다섯 가지 사례가 보유한 각각의 특징은 무엇이며 이와 같이 상이한 특징이 발현된 이유는 무엇인가?

2. 중세 근동 압바스 왕조의 연계망이 상인들의 공간혁명을 이끌 수 있었던 다섯 가지 요인은 무엇이고 이와 같은 요인은 이후 세계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3. 대항해 시대 이후 유럽이 신대륙을 정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며 (2가지 제시) 대항해 시대 이후 최초의 세계 경제를 추동한 힘은 무엇인가?
4. **[바칼로레아 발제]** 독일의 철학자 게오르크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년)은 “경험과 역사는 사람과 정부가 결코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으며 역사로부터 고집어냈어야 할 교훈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개탄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인류가 진보하고 있다고 느끼며 기술과 과학의 발전만으로도 이 사실은 충분히 증명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역사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거시적 측면에서 몇몇 사건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목격하게 된다. 그렇다면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Arnold J. Toynbee: 1889-1975년)의 언명대로 “역사는 반복되는 것”일까?

☞ **2월 09일 토요일(9회): 기원(ORIGIN)**

09:10-12:30 **Science No.3 - 원자의 세계 I , 열에너지, Food & Cooking**
Project 2 - 상품의 spec. 에 대한 연습

- 담당: 권희민 (자양라이프아카데미 선생님)

13:30-15:00 **3분 스피치 - 내가 생각하는 바른인재란? (4명)**
우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 사회적 이슈 (5조)

15:00-18:00 **Module: 서양철학 전반 - 철학으로 들어가는 18 개의 문 혹은 놀이터**

- 담당: 유성환 (자양라이프아카데미 담임)

- 필독도서

남경태, 『철학 입문 18』 (2013) 휴머니스트

- 개요: 자양라이프아카데미의 역사와 철학 모듈은 앎을 통한 자아의 확장이다. 지식의 증대는 단순히 개인의 역량 강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은폐되어 왔던 불합리한 요소를 그 공고한 보호색으로부터 구별해낼 수 있는 비판적인 안목을 배양하는 데 있다. 그 첫 번째 기획인 **기원(ORIGIN)**의 두 번째 필독 도서인 **『철학 입문 18』**은 철학적 사유를 훈련하기 위해 사유와 인식, 주체 등의 철학의 주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총 18가지 상황을 콩트, 대화, 일기, 판타지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제시한다. 무엇보다 이 책의 미덕은 철학적 주제를 독자가 스스로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제시한다는 데 있다. 저자의 말과 같이 저자가 마련한 철학적 놀이터에서 철학을 실천하는 방법을 함께 구상해 보자.
- 생각해볼 문제
 1. 이 책은 독자가 일상생활에서 철학적 주제를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철학적 성찰이 개인의 일상생활, 보다 크게 세상을 바꾸는 데 적용될 수 있을까?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

2. 지금의 터키에 해당하는 소아시아에 등장한 최초의 자연철학자들은 ‘세상 만물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자연철학에서는 모든 사물이 궁극적으로 동일한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고 그 원질을 “아르케”(arche)라고 불렀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아르케”를 어떻게 정의했는가? 자연철학은 어떤 면에서 인류의 사상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을까? 자연철학 이후 인간의 본성에 대한 탐구는 어떻게 가능한가?
3.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의 정의는 여전히 유효한가? 종교와 달리 철학은 사회적, 개인적 도덕과 윤리에 어떻게 접근하며 이 둘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사유의 예술”인 철학은 궁극적으로 보편적 진리를 지향하는가?
4. “축의 시대”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세계는 인식의 대상이고 인간은 인식의 주체라는 명제는 여전히 유효한가? “축의 시대”에 확립된 황금률을 각자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5. [바칼로레아 발제] 그 어떤 철학자로 단순히 훌륭한 이론체계를 구축하는 즐거움을 위해 철학을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모든 철학자는 자신의 성찰이 남들에게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란다. 그러나 과연 철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 것일까? 철학이란 순수한 성찰이므로 처음부터 실제적 유용성과는 단절된 것이 아닌가?

☞ 2월 11일 월요일: 과학 실습 - 수제맥주만들기 (에메이징브루잉컴퍼니 아카데미)

☞ 2월 16일 토요일(10회): 기원(ORIGIN)

09:10-12:30 Business Case 첫번째 발표 - Fast Fashion

- 담당: 윤세웅 (자양라이프아카데미 교장), 이봉진 (자라코리아 대표)
- 개요: 케이스 스터디 세번째 시간은 Fast Fashion의 대표 유니클로, 자라, H&M 수익모델에 대해서 알아보시다. 여러분들이 준비한 내용들을 모두에게 프레젠테이션 해야합니다. 그리고 발표가 끝난 뒤에는 이봉진 자라코리아 대표의 강평, Fast Fashion업에 대한 속성, 성공 전략,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토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민과 토론이 과연 현실에서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잘 배워보길 바랍니다.
- 두번째 케이스 과제: 주류산업 -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집중분석
 1. 각 조별 20분 발표 분량 준비(질의응답 포함) - 회사별 3개조씩 준비
 2. 기본사항(비즈니스모델&재무현황) + 중점사항(전략&이슈&지속 가능성)
 - 1) 세 회사의 차별화된 전략은 무엇인가?
 - 2) 어떤 전략으로 세계시장(AB인베브) 그리고 한국시장에서 성공했을까?
 - 3) 한국기업은 주류시장에서 글로벌화 하는데 어떤 이슈가 있을까?
 - 4) 주류산업은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까? 현 시점에서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이 가능한 것인가? 틈새시장은 없는가?

13:30-15:00 3분 스피치 - 내가 생각하는 바른인재란? (4명)

우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 사회적 이슈 (4조)

- 담당: 유성환 (자양라이프아카데미 담임)
- 필독도서
최진석, 『생각하는 힘, 노자 인문학』 (2015) 위즈덤하우스
- 개요: 자양라이프아카데미의 역사와 철학 모듈은 앎을 통한 자아의 확장이다. 지식의 증대는 단순히 개인의 역량 강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은폐되어 왔던 불합리한 요소를 그 공고한 보호색으로부터 구별해낼 수 있는 비판적인 안목을 배양하는 데 있다. 그 첫 번째 기획인 **기원(ORIGIN)**의 세 번째 필독 도서인 『생각하는 힘, 노자 인문학』은 노자 철학 혹은 도가^{道家}라는 동양의 철학 유파 중 하나에서 출발해 철학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누군가의 정의와 같이, “철학은 언제나 내 정신에 찬물 한 바가지 끼얹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린 삶을 새롭게 되돌아보고 그 동안 소홀히 해 온 중요한 것들을 되찾는 과정이 철학이다. 그러므로 철학은 일상생활과 괴리된 현학적 유희이거나 비현실적 몽상으로 남을 수만은 없다. 오늘날 다시 소환된 노자와 함께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동양 철학이라는 외피를 빌어 한번 짚 진지하게 탐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 생각해볼 문제
 1. 저자가 말하는 “철학 하기” 혹은 “생각하는 힘”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울러 저자의 논리는 논리 앞서 리처드 니스벳이 『생각의 지도』에서 제시한 동양의 사고방식과는 어떤 점이 유사하며, 또 어떤 점이 다른가?
 2. 철학적 사유 혹은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는 것은 일상생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나의 사유 혹은 논리를 일상생활에 관철하고 실천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
 3. 철학이 철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면 삶을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당당한 자세로 살아가는 데 있어, 다시 말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나는 데 있어 철학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
 4. 천명론^{天命論}을 극복하기 위해 노자가 사용한 논리는 무엇인가? 생각의 터전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저자는 무엇부터 시작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5. [바칼로레아 발제] “자신의 과거에서 단절된 개인”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기 어렵다면, 현재 순간의 한 주체를 정의하는 데 있어 그의 과거가 지니는 중요성을 평가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나는 내 과거의 총합일 뿐인가?

☞ 2월 23일 토요일(11회): 발견(DISCOVERY)

09:10-10:40 Elective 1: 대중음악

- 담당: 정원영 (호원대학교 실용음악학부 교수)
- 분야: Art(3)

11:00-12:30 Elective 2: '마케팅커뮤니케이션 : 광고적 생각, 광고의 생각'

- 담당: 최규현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분야: Career(2)

- 개요
 1. Why: 마케팅/광고/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이해
 2. What: 마케팅/커뮤니케이션/광고의 기본 개념
 3. How: 마케팅/광고와 커리어 가치(Career Value)

- 생각해볼 문제
 1. 왜 우리는 마케팅과 광고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
 2. 향후 사회인으로서 혹은 고객으로서 '나와 마케팅/광고는 어떻게 관계되는가?
 3. 마케팅과 광고사례를 통해 시대의 새로운 관점과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13:30-15:00 3분 스피치 - 내가 생각하는 바른인재란? (4명)
우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 사회적 이슈 (3조)

15:00-18:00 Module: 예술 - 아는 만큼 보인다. 그렇다면 무엇을 볼 것인가?

- 담당: 김은자 (자양라이프아카데미 사무국장)

- 사전과제 (별도공지)

- 개요: 자양라이프아카데미의 역사와 철학 모듈은 앎을 통한 자아의 확장이다. 지식의 증대는 단순히 개인의 역량 강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은폐되어 왔던 불합리한 요소를 그 공고한 보호색으로부터 구별해낼 수 있는 비판적인 안목을 배양하는 데 있다. 고대와 중세 등 시대별 구성에는 주제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초 교양 주간(RF WEEK)**으로 선정하여 시대별 구성에서는 다룰 수 없는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한다. 금주에는 예술 작품의 감상에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소양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감상자의 직관과 경험이 예술 작품의 이해와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보자.

- 생각해볼 문제
 1. 예술작품을 접하면서 가지게 되는 즉각적인 반응은 온전히 나의 것인가? 만일 맥락이 감상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면 예술을 감상하는 데 요구되는 기본적인 지식과 자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자질이 갖추어진 후 보다 깊은 층위의 의미를 읽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

까? 회화·조각 등 시각 예술 작품은 철학·역사·문학 등 다른 예술 분야와는 어떻게 연결되고 조응하는가?

2. 한 예술 작품이 당대의 시대적 가치를 넘어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반대로 한 예술 작품에서 당대의 현안을 연상한다면 그것은 감상자가 현재 처한 맥락과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키는가?
3. 예술 활동이나 이해 혹은 감상을 통해 길러진 감수성과 통찰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보다 구체적으로, 평범한 장면에서 숨겨진 정보를 파악하는 기술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혹은 그런 기술이 정말 중요할까?
4. 현대인에게 예술의 가치는 무엇일까? 디지털 기술로 구성과 재현이 완벽하게 실현될 수 있는 상황에서 향후 시각 예술이 맡게 될 역할은 무엇일까?
5. [바칼로레아 발제] 흔히 예술을 “쓸모 없다”고 한다. 예술이 현실과 별 관계가 없다거나 현실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데에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예술 작품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현실을 벗어나게 해줌으로써 현실의 어려움을 잊게 해준다고도 판단할 수도 있다. 예술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가? 아니면 예술은 주변적이고 도피적이지만 한 게 아니라 인간과 현실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

☞ 2월 26일 화요일: 문화활동 - 마르셀 뒤샹 전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 3월 02일 토요일(12회): 발견(DISCOVERY)

09:10-10:40 Elective 1: 자동차디자인 이야기

- 담당: 박중서 (FOMA그룹 대표, 전 현대/기아 자동차 디자인연구소장)
- 분야: Art(4)
- 개요: 평생 자동차디자이너로서의 삶은 살아오면서 한번도 자동차 디자인만을 고집한 적이 없었다. 인문, 예술, 과학 분야를 넘나들며 다양한 분야에서 결국 모든 답은 자연에서 찾을 수 있었다. 4차산업혁명의 중심에서 여전히 미래를 위한 답을 찾기 위해서 숲으로,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로 여행을 떠나는 디자이너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생각해볼 문제
 1. 창의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2.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의 접근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3. 스스로 선택한 직업과 커리어를 지속하기 위한 자기만의 철학과 소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11:00-12:30 Elective 2: 비주류(乙)의 경쟁력

- 담당: 김낙희 (서강대학교 Art & Technology 석좌교수, 전 제일기획 대표)
- 분야: Career(3)
- 개요: 시대가 불확실 하고 미래가 불안해도 패기와 열정만 있다면 한번 도전할 만한 사회이고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 전달이 특강의 목표입니다. 비주류(乙)로 살아오면서 어떻게 말단 사원에서 CEO까지 오를 수 있었는지 그 열등감 극복의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함. 1)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2)간절한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3)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 생각해볼 문제
 1. 나만의 매력은 무엇인가?
 2. 나만의 좋은 습관이 있는가?
 3. 나만의 자기 관리 기준이 있는가?
 4. 나만의 좌우명과 삶의 원칙이 있는가?

13:30-15:00 신규 조편성 Ice Breaking / Virtue Project 및 도덕적 딜레마 운영안내

15:00-18:00 Module: 중세 유럽사 - 현대의 거울상 중세의 정확한 모습

- 담당: 유성환 (자양라이프아카데미 담임)
- 필독도서
박용진, 『중세 유럽은 암흑시대였는가?』 (2010) 민음인

➤ 개요: 자양라이프아카데미의 역사와 철학 모듈은 앎을 통한 자아의 확장이다. 지식의 증대는 단순히 개인의 역량 강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은폐되어 왔던 불합리한 요소를 그 공고한 보호색으로부터 구별해낼 수 있는 비판적인 안목을 배양하는 데 있다. 라이프 아카데미의 두 번째 테마는 동서양 세계사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세사와 이슬람 문명을 탐구하는 **발견 (DISCOVERY)**이다. 이 테마의 첫 번째 필독 도서인 『**중세 유럽은 암흑시대였는가?**』는 흔히 고대 사회와 근대 서구 사이에 존재하는 “암흑시대”(Dark Age), 즉 경직된 신앙이 이성과 생활 전반을 지배하던 어둠의 시대 정도로 치부되는 중세에 대한 정확한 시대상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다. 저자는 대중의 편견과 부정적 시각을 극복하고 서양의 중세가 현재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한다.

➤ **생각해볼 문제**

1. 고대 사회와 중세 유럽 간의 연속성은 무엇이며, 이 두 문명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두 문명 간의 차이점을 통해 파악 가능한, 중세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제시한다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
2. 중세는 유럽의 역사가 균질적 연속체가 아니라 서로 사른 속도로 움직이는 다층적 구조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역사관과 해석은 동양의 중세에도 적용이 가능할까? 그렇다면 동양의 중세 풍경은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3. 고대의 세계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현재에도 광범위한 독자층을 보유하고 있는, 이탈리아 기호학자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 1932-2016 년)의 장편소설 『장미의 이름』에 투영된 중세인의 세계관은 무엇인가? 삶의 주체로서 기사와 상인, 농노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달랐으며 또한 서로 어떤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었나? 아울러 종교와 세속 권력 간의 협력과 투쟁의 과정은 어떻게 전개되었나?
4. [바칼로레아 발제] 프랑스의 경제학자 장-밥티스트 세이(Jean-Baptiste Say: 1767-1832 년)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닳았다. 역사란 거기서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를 읽을 수 있기에 유용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움베르토 에코는 그의 또 다른 저서 『포스트 모던인가 새로운 중세인가』에서 20 세기말 인류가 처한 변화의 쟁점들이 중세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갈파한다. 그렇다면 인류가 끝없이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의미에서 역사는 반복되는가? 아니면 그와 같은 실수를 수정하고 해결한다는 점에서 진보하는가?

☞ 3월 09일 토요일(13회): 발견(DISCOVERY)

09:10-12:30 Science No.4 - 원자의 세계 II, 빛, 양자역학, 감각의 세계(시각), 뇌, Silicon Tech
Project 3 - 차별화 spec. 에 대한 연습

➤ 담당: 권희민 (자양라이프아카데미 선생님)

13:30-15:00 강점코칭 Review - 윤여순 선생님
3분 스피치 - 내가 생각하는 바른인재란? (2명) / “정직” 덕목 (2명)

15:00-18:00 Module: 이슬람 문화사 - 적개심 가득한 9/11 이후의 세계 읽기

➤ 담당: 유성환 (자양라이프아카데미 담임)

➤ 필독도서

타미 안사리, 『이슬람의 눈으로 본 세계사』, 류한원 옮김 (2011) 뿌리와이파리

➤ 개요: 자양라이프아카데미의 역사와 철학 모듈은 앎을 통한 자아의 확장이다. 지식의 증대는 단순히 개인의 역량 강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은폐되어 왔던 불합리한 요소를 그 공고한 보호색으로부터 구별해낼 수 있는 비판적인 안목을 배양하는 데 있다. 라이프 아카데미의 두 번째 테마는 동서양 세계사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세사와 이슬람 문명을 탐구하는 **발견 (DISCOVERY)**이다. 이 테마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인 필독 도서인 『이슬람의 눈으로 본 세계사』는 흔히 폭력과 테러, 남녀 차별 등과 같은 부정적인 면으로만 알려진 이슬람 종교와 공동체의 1,500년에 걸친 역사를 서구의 시각이 아닌 이슬람 내부자의 시각으로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복원하고 있다. 세계 3대 종교 중 하나로서 전세계 16억 인구의 삶과 믿음에 지금까지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슬람 종교와 문화는 균형 잡힌 국제 감각을 가진 지식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번은 반드시 공부해야 할 분야이다.

➤ 조별 발표 주제(1조): 한국에서의 이슬람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서구의 일신교와 달리 이슬람이 한국 사회에 널리 확산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난민 문제를 비롯해 이슬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만연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편견은 극복 가능한가?

➤ 생각해볼 문제

1. 이슬람 공동체에서 “지하드”(jihad)의 정의는 무엇인가? 각 지역과 세대에 따라 “지하드”의 개념은 어떻게 변해왔으며 9/11 테러 이후 현대 국제사회에서 “지하드”가 논란의 대상이 된 배경은 무엇인가?
2. 이슬람 공동체와 서구식 민주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슬람 종교 및 문화가 다수인 지역에서 혁명이 세속적 민주주의 체제의 성립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3. [바칼로레아 발제] 프로이센의 군인이자 군사 사상가였던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 1780-1831년)가 “전쟁은 정치의 또 다른 수단”이라고 정의한 것과 같이 전쟁을 (평화로운) 외교가 실패한 정치의 연장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을 불가피한 인간의 실존적 조건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자유를 위한 무력적 저항이나 이슬람의 지하드와 같은 “정의로운 전쟁”은 과연 존재하는가?

☞ 3월 16일 토요일(14회): 혁신(INNOVATION)

09:10-10:40 Elective 1: Dream & Determination

- 담당: 서재경 (아름다운서당 & 남도학숙 원장)
- 분야: Career(4)

- 개요: D&D는 말 그대로 '꿈'과 '결단'을 뜻합니다. 성공을 말하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배울만한 가치가 있는 법칙일 것입니다. 이번 시간 16명의 세계적인 인물들에 대해 알아보고 그들의 성공의 법칙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 발표 내용
 1. 16명의 인물에 대해 인물별로 1명이 동료 수업을 한다.
 2. 준비된 자료를 활용하고 추가적인 자료가 있을경우 발표자가 정한다.

11:00-12:30 Elective 2: '기레기 저널리즘'시대의 저널리스트

- 담당: 양선희 (중앙콘텐츠랩 대기자)
- 분야: Career(5)

- 개요
 1. 저널리즘이란 무엇인가?
 2. 동굴벽화부터 모바일까지 미디어의 변천이 가져온 저널리즘의 양식과 태도의 변화
 3. 기자는 왜 기레기가 되었을까?
 4. 기레기 vs 저널리스트
 5.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6. 제대로 생각해야 제대로 쓸 수 있다

13:30-15:00 우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 도덕적 딜레마 (2조)

3분 스피치 - 내가 생각하는 바른인재란? (2명) / “근면” 덕목 (2명)

15:00-18:00 Module: 과학사와 근대화 - 우리의 시각으로 재구성한 서양 과학사

- 담당: 유성환 (자양라이프아카데미 담임)

- 필독도서
정인경, 『뉴턴의 무정한 세계』 (2014) 돌베개

- 개요: 자양라이프아카데미의 역사와 철학 모듈은 앎을 통한 자아의 확장이다. 지식의 증대는 단 순히 개인의 역량 강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은폐되어 왔던 불합리한 요소를 그 공고한 보호색으로부터 구별해낼 수 있는 비판적인 안목을 배양하는 데 있다. 앞서 첫 번째 테마인 기원(ORIGIN)과 두 번째 테마인 발견(DISCOVERY)이 각각 식물의 뿌리와 줄기에 해당한다면 세 번째 테마 혁신(INNOVATION)은 열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테마의 첫 번째 필독 도서인 『뉴턴의 무정한 세계』를 통해서서는 서구 문명의 열매라 할 수 있는 과학혁명

을 우리의 눈으로 살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과거 신학의 영역이었던 세상의 원리를 엄정한 수학적 방식으로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는 확신은 유럽을 자신만만한 근대 세계로 변모시켰다. 그러나 동양으로 이식된 서양의 근대과학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삶의 뿌리를 해체시키는 폭력적이고 잔혹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서구 문명의 어두운 뿌리는 오늘날까지 세계 전반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런 암울한 과거의 유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감성과 인문학적 통찰이 모두 요구된다.

- 자율 토론 주제: 한국에서의 과학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과학을 전공으로 하지 않는 학생들이 과학적 사고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울러 과학을 바탕으로 한 인문학적 사고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생각해볼 문제
 1. 한국에서 과학은 얇이 아니라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과학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과학적 감수성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세계를 보는 관점을 확장시키고 삶의 독해력을 넓히는 데 과학은 어떻게 기여하는가? 과학의 발전에 따른 세계관의 변화는 미래 세계의 정치·종교·문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2.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직관적으로 이해한 이상(李箱: 1910-1937년)은 이를 시로 풀어냈지만 동시대 일본의 유카와 히데키(湯川秀樹: 1907-1981년)는 일본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당시 조선과 일본의 이와 같은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며 두 나라의 과학적 토양은 수용의 측면에서 어떻게 달랐는가?
 3. 한국에서의 과학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과학을 전공으로 하지 않는 학생들이 과학적 사고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울러 과학을 바탕으로 한 인문학적 사고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4. **[바칼로레아 발제]** 영국의 생화학자 스티븐 로즈(Steven Rose: 1938년-현재)는 “과학적 지식은 절대적이지 않다. 그것은 사회적·문화적·기술적·역사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잠정적이다”라고 했다. 과학적 진리는 과연 잠정적일 뿐인가?

☞ 3월 23일 토요일(15회): 혁신(INNOVATION)

09:10-10:40 Elective 1: 블록체인 -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 담당: 이병호 (펀드온라인코리아 대표)
- 분야: Technology(2)
 - 개요: 블록체인은 인터넷 이후 가장 파괴적인 기술이라 불리울 정도로 많은 변화를 인류에게 줄 수 있는 기술이다. 그러나 분산 연산 기술(Distributed Computing Technology)이어서 중앙 집중식 사고에 친숙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이 과정에서, 기술적이 혁신을 이용하여,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발전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를 위하여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가?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본다.
 - 생각해볼 문제
 1. 블록체인: 무엇인가? 무엇을 바꿀 수 있나?
 2. 변화의 시대: 어디로 가야하나?
 3. 변화의 시대: 나는 무엇을 할까?
 4.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11:00-12:30 Elective 2: 블록체인-코인/토큰 이코노미

- 담당: 김진석 (전 CJ헬로비전 대표)
- 분야: Technology(3)
 - 개요: 블록체인과 토큰 유형의 프레임워크와 활용 사례에 대해 살펴본다.
 - 생각해볼 문제
 1. 블록체인 암호화폐(토큰)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3:30-15:00 우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 도덕적 딜레마 (3조)

3분 스피치 - 내가 생각하는 바른인재란? (2명) / “예의” 덕목 (2명)

15:00-18:00 Module: 전체주의의 출현 - 전쟁은 평화·자유는 예속·무지는 힘

- 담당: 유성환 (자양라이프아카데미 담임)
- 필독도서
조지 오웰, 『1984』, 정의성 옮김 (2003) 민음사
 - 개요: 자양라이프아카데미의 역사와 철학 모듈은 앎을 통한 자아의 확장이다. 지식의 증대는 단순히 개인의 역량 강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은폐되어 왔던 불합리한 요소를 그 공고한 보호색으로부터 구별해낼 수 있는 비판적인 안목을 배양하는 데 있다. 앞서 첫 번째 테마인 기원(ORIGIN)과 두 번째 테마인 발견(DISCOVERY)이 각각 식물의 뿌리와 줄기에 해당한다면 세 번째 테마 **혁신(INNOVATION)**은 열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테마의 두

번째 도서인 『1984』는 득의 만만했던 서구 근대사회가 전체주의의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폭로한다. 내가 우리로 확장되었을 때 우리의 가치만이 극대화된 사회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계몽주의와 과학혁명이라는 진보에도 불구하고 서구는 왜 전체주의라는 극단적인 사회체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까?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가 무너지고 공감과 협동이 강제가 되는 세상이 도래한다면 우리는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문학적 상상력을 빌어 공부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 **생각해볼 문제**

1. 고전의 반열에 오른 문학작품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만일 기여할 수 있다면 그 구체적인 효용은 무엇인가? 아울러 이러한 고전들은 일상에서 직면한 개인이 당대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2. 작품에 등장하는 “이중 사고”(double-think)와 현대 사회에 만연한 언어의 오용은 어떻게 조응하는가? 언어의 혼란은 대중의 무기력을 어떻게 강화하는가? 아울러 작품에 묘사된 행정통치에 의한 권력의 편재, 즉 인격화된 권력이 아닌 시스템화된 권력이 지배하는 기술 공학의 도래를 저지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3. 개인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와 집단의 협력을 중시하는 문화가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공존하는 것은 가능한가? 공존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 현대 정치 무대에 다시금 등장하고 있는 포퓰리즘이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형태의 전체주의를 불러올 위험은 없는 것일까?
4. **[바칼로레아 발제]**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년)는 “(국가란)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관계, 합법적 폭력의 독점에 근거를 둔 지배관계이다”라고 정의했다. 사회성은 문화의 기본조건이지만 공동체 정신을 너무 강조할 경우 개인을 집단의 부속품으로 평가 절하할 위험이 있다. 그렇다면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를 (언제나) 억압하는가?

☞ **3월 30일 토요일(16회): 혁신(INNOVATION)**

09:10-12:30 **Business Case 두번째 발표 - 주류산업**

➤ **담당: 윤세웅 (자양라이프아카데미 교장), 김희윤 (더부스브루잉 대표)**

- **개요:** 케이스 스터디 네번째 시간은 국내 주류산업의 대표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수익모델에 대해서 알아보시다. 여러분들이 준비한 내용들을 모두에게 프레젠테이션 해야합니다. 그리고 발표가 끝난 뒤에는 김희윤 더부스브루잉 대표의 강평과 창업에 대한 경험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더부스는 불과 5~6년만에 매출액 100억을 넘는 벤처가 되었습니다. 1) 기존의 대기업과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전략 2) 기존의 업을 새롭게 재정의하는 케이스, 지속가능 할까? 3)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토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민과 토론이 과연 현실에서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잘 배워보길 바랍니다.

➤ **세번째 케이스 과제: Digital Disruption - Digital 회사**

1. 각 조별 20분 발표 분량 준비(질의응답 포함) - 회사별 1개조씩 준비 _ 모두발표
2. 시상운영 - 동료평가를 통해 3개 조 선정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상품권)
3. 기본사항(비즈니스모델&재무현황) + 중점사항(전략&이슈&지속 가능성)

- 1) 회사의 차별화된 전략은 무엇인가?
- 2) 어떤 전략으로 세계시장(or 한국시장)에서 성공했을까?
- 3) 회사의 현재 이슈에 대한 대안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13:30-15:00 **우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 도덕적 딜레마 (4조)**
3분 스피치 - 내가 생각하는 바른인재란? (2명) / “책임” 덕목 (2명)

15:00-18:00 **Module: 동아시아의 근대화 - 근대화 우등생 일본을 만든 것은 무엇인가?**

➤ 담당: 유성환 (자양라이프아카데미 담임)

➤ 필독도서

신상목,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일본사』 (2017) 뿌리와이파리

➤ 개요: 자양라이프아카데미의 역사와 철학 모듈은 앎을 통한 자아의 확장이다. 지식의 증대는 단 순히 개인의 역량 강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은폐되어 왔던 불합리한 요소를 그 공 고한 보호색으로부터 구별해낼 수 있는 비판적인 안목을 배양하는 데 있다. 앞서 첫 번째 테마 인 기원(ORIGIN)과 두 번째 테마인 발견(DISCOVERY)이 각각 식물의 뿌리와 줄기에 해당한 다면 세 번째 테마 혁신(INNOVATION)은 열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테마의 세 번째 필독 도서인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일본사』는 동아시아의 왜곡된 근대화를 다룬다. 동양에 대한 기존의 열세를 뒤집은 서구 제국들은 전세계로 팽창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투사 했는데 이 시기에 형성된 서구와 비서구의 비대칭적 관계와 구조는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제국주의 시기, 동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하고 서구 열강과 겨루며 같은 아시 아 국가를 침탈했던 근대 일본의 모습을 통해 제국의 번영과 몰락의 역사를 냉정하고도 비판적 인 시각에서 재조명해보자.

➤ 생각해볼 문제

1. 계몽주의가 동양에서 전반적인 지식혁명으로 발현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서양 근대화 에서 발견되는 연쇄적인 발전, 즉 계몽주의·산업혁명·시민혁명이 그간 서구에 비해 우월 한 문명 수준을 유지했던 동양에서 성취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2. 저자는 메이지 유신 이전의 에도 시대를 “축적”蓄積과 “가교”架橋의 시간으로 규정한다. 중앙집 권적인 통일 왕조 체제를 유지했던 조선과 달리 각 제후들의 독립성을 일정 수준 보장하면 서도 참근교대제參勤交代制와 같은 정책을 통해 권력의 분점을 엄격하게 견제한 일본의 막부 체 제에서 저자가 발견한 근대적 특징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3. 에도 시대 말기 점증하는 내부 모순과 외세의 출현이 가져온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직면한 일본의 지식인들이 숙고한 “문명”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들의 대응은 중국과 조선의 지식 인들이 보여준 반응과 어떤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였는가?
4. 근대의 발전은 서양의 우월성을 보여주는가? 그렇지 않다면 21세기 들어 논의되기 시작한 소위 “축의 이동”(Power Shift)은 서구에 대해 동양이 다시 한번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동양은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보편적인 패러다임을 창출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 4월 06일 토요일(17회): 혁신(INNOVATION)

09:10-10:40 Elective 1: '장애'가 장애인가?

- 담당: 이지영 (사회관계연구소 소장)
- 분야: 인성(2)

- 개요: 우리나라 인구의 약 5%는 장애인입니다. 가구 수로 보면 6가구 중 1가구에 장애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애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를 잘못된 것으로 여기는 편견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일터에서 장애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보고 장애인과 함께 하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에티켓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 생각해볼 문제
 1.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은 무엇인가요?
 2. '장애'와 관련된 표현이나 속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1:00-12:30 Elective 2: '힘'의 프레임-다문화

- 담당: 이지영 (사회관계연구소 소장)
- 분야: 인성(3)

- 개요: 여러분은 다문화가정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억하는 다문화가정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또,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 어떤 나라들이 떠오르나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다양한 외모와 다양한 성격,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생기는 갈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나와 '다르다'는 것은 '틀리다'는 뜻일까요? 우리가 생활하는 사회와 문화와 교육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문화의 차이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파악해보고, 정반대의 입장에 서서 고민해봄으로써 다문화가정을 대하는 우리의 시각과 태도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합니다.

- 생각해볼 문제
 1.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로 발생하는 갈등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세대간 갈등, 성별 갈등, 직급 간 갈등, 각종 차별 등
 2.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나라의 독특한 문화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또 그 나라가 그런 문화를 가지게 된 원인 혹은 결과는 무엇일까요?

13:30-15:00 우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 도덕적 딜레마 (5조)

3분 스피치 - 내가 생각하는 바른인재란? (2명) / "신의" 덕목 (2명)

15:00-18:00 **Module: 조선의 근대 - 개혁을 열망했던 조선 지식인들이 꿈꾼 나라**

➤ 담당: 유성환 (자양라이프아카데미 담임)

➤ 필독도서

김문식 외, 『실학, 조선의 르네상스를 열다』 (2018) 사우

➤ 개요: 자양라이프아카데미의 역사와 철학 모듈은 앎을 통한 자아의 확장이다. 지식의 증대는 단순히 개인의 역량 강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은폐되어 왔던 불합리한 요소를 그 공고한 보호색으로부터 구별해낼 수 있는 비판적인 안목을 배양하는 데 있다. 앞서 첫 번째 테마인 기원(ORIGIN)과 두 번째 테마인 발견(DISCOVERY)이 각각 식물의 뿌리와 줄기에 해당한다면 세 번째 테마 **혁신(INNOVATION)**은 열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테마의 네 번째 필독 도서인 『실학, 조선의 르네상스를 열다』를 통해 일본과 달리 자주적 근대화에 끝내 실패했던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고민을 실학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살펴본다. 조선 후기 실학의 실체를 파악하는 작업은 질곡의 근대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대에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실사구시^{實事求是} 사상을 파악하는 단초가 되어줄 것이다.

➤ 대립토론 학생발제 주제 (AAKorea - 예습 질문)

: 조선의 실학 사상 중 오늘날의 사회제도 변혁을 위해 소환될 수 있는 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찬반을 나누어 토론할 수 있는 대립 토론 주제를 하나 이상 제시하고 해당 발제를 선정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보자.

➤ 생각해볼 문제

1. 한국의 “흙수저론”뿐만 아니라 미국의 “1% 대 99%”의 대립, “월가 점령”(Occupy the Wall Street) 시위 등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발생한 계층의 고착화는 전세계적으로 또 다른 신분제의 등장으로 비판 받고 있다. 조선 후기 신분제의 모순에 대해 실학자들은 어떤 비판과 대안을 제시했는가? 이와 같은 비판과 대안 중 현대의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참고할만한 아이디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 부동산 시장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첨예한 대립이 존재하는 민감한 사회 현안이다. 막대한 토지를 소유한 지주 계층의 출현을 목도한 실학자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정전제^{井田制}와 한전제^{限田制} 등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아울러 이와 같은 이상적인 토지제도 역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가?
3.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탈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서학^{西學}, 즉 천주교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학문적 접근은 이후 신앙으로 변화하면서 국가의 대대적인 탄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에는 실패했다. 서학이 일본의 난학^{蘭學}과 같은 서구의 실체를 파악하는 학문으로서 성립할 수 있었다면 근대화를 주도하는 대안학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을까? 아울러 조선이 서구 열강과 일본의 간섭 없이 점진적이지만 독자적인 개혁을 추진했다라면 서양의 근대 사회와 유사한 민주주의·시민사회를 형성할 수 있었을까? 현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실학의 뚜렷한 한계는 무엇인가?

80 4월 13일 토요일(18회): 혁신(INNOVATION)

09:10-11:30 Module: 공감의 동심원 - 왜 우리는 담담한 시선을 나누는 데 서툴까?

- 담당: 유성환 (자양라이프아카데미 담임)
- 필독도서
류승연, 『사양합니다, 동네 바보 형이라는 말』 (2018) 푸른숲
- 개요: 자양라이프아카데미의 역사와 철학 모듈은 앎을 통한 자아의 확장이다. 지식의 증대는 단순히 개인의 역량 강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은폐되어 왔던 불합리한 요소를 그 공고한 보호색으로부터 구별해낼 수 있는 비판적인 안목을 배양하는 데 있다. 고대와 중세 등 시대별 구성에는 주제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11회(2월 23일)·18회(4월 13일)를 기초 교양 주간(RF WEEK)으로 선정하여 시대별 구성에서는 다룰 수 없는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독서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한다. 지난주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시선>과 연계하여 한국에서 장애 아동을 키우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삶을 글로 엮어낸 『사양합니다, 동네 바보 형이라는 말』을 읽고 장애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저자가 말하는, 그들이 “행복해야 할 권리”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보고자 한다.
- 생각해볼 문제
 1. 나에서 우리, 우리에서 세계로 “공감의 동심원”을 확대해 나갈 때 마주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우리가 고민해야 할 건강한 공존의 방식은 무엇일까? 사회적 약자가 폭로하는 사회의 내재적 모순과 다양성에 대해 우리는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할까?
 2. 발달장애란 무엇인가? 저자는 발달 장애인들에게도 책임을 가르치면 책임감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사회성이 부족한 발달 장애인들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그에 따라 파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문제는 무엇인가?
 3. 저자는 장애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틀린”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할까? 저자의 말처럼 숨기면 약점이 되지만 드러내면 더 이상 약점이 되지 않는 것일까? 이 과정에서 개입되는 언어적·사회적 기제는 무엇인가?
 4. [바칼로레아 발제] 사마천(司馬遷: 기원전 145-86년)은 『사기』에서 “천도는 공평무사해서 항상 착한 사람을 돕는다”는 말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에 반대되는 수많은 역사적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당위보다는 실리이다. 인간으로서 강자보다는 약자의 편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인간이 자연의 한 부분임을 인정한다면 항상 약자의 편에 서고자 하는 것은 이상에 불과한 것 아닐까?

11:30-18:00 End of Module (EOM) & 양재천 봉사활동

- 주제: 자양라이프 Bfter (Before+After)
- 개요: 라이프아카데미는 바른 인재를 키워 큰 세상으로 내보내겠다는 뜻을 품고 지식교육뿐 아니라 전인격적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곳에서는 일방적인 가르침보다 스스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며 다양한 분야에 호기심을 느끼며 스스로 좋은 습

관을 만들어가는 교육현장이 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지 각 자 확인해보고 서로에게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생각해볼 문제 (AAkorea 글쓰기 - 필수제출)
 1. 자양라이프아카데미를 통해 배운점과 느낀점은?
 2. 앞으로의 나의 계획은? (자양라이프 전후비교 등)
- EOM 운영
 1. 각 조별 2명 대표 PT 발표 (5분 분량)

∞ 4월 20일 토요일(19회): 문화활동 - 데이비드호크니 전시 (서울시립미술관)

∞ 4월 27일 토요일(20회): 개화(BLOOMING)

09:10-12:30 **사람다움의 길 - 나의 좌우명은?**

- 담당: 이찬호 (진바이오텍 대표)
- 분야: 인성(4)
- 참고도서
한정주, 『울곡인문학』 (2017) 다산초당
- 개요: 좌우명이란? 늘 자리 옆에 적어놓고 자기(自己)를 경계(警戒)하는 말, 가르침으로 삼는 말이나 문구(文句)로 20대 본인만의 좌우명을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리고 청년 울곡의 자경문(自警文)을 통하여 본인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자양라이프아카데미 3기 수료시까지 사람다움의 길에 대한 고민과 새로운 다짐을 이어 나갔으면 합니다.
- 발표내용 & 운영
 1. 37명 전원 3분 스피치 (PPT 발표)
 2. 본인의 좌우명은?
좌우명을 결정한 이유는? - 내가 생각하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의 의미’를 포함하여

13:30-15:00 **우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 도덕적 딜레마 (6조)**
3분 스피치 - 내가 생각하는 바른인재란? (2명) / “절제” 덕목 (2명)

15:00-18:00 **Module: 현대의 정체 - 지금의 세계를 만든 결정적 아이디어**

- 담당: 유성환 (자양라이프아카데미 담임)
- 필독도서
스콧 몽고메리 외, 『현대의 탄생』 (2018) 책세상 (1장-4장)
- 개요: 자양라이프아카데미의 역사와 철학 모듈은 앎을 통한 자아의 확장이다. 지식의 증대는 단순히 개인의 역량 강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은폐되어 왔던 불합리한 요소를 그 공고한 보호색으로부터 구별해낼 수 있는 비판적인 안목을 배양하는 데 있다. 라이프아카데미의 네 번째 테마 **개화(BLOOMING)**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이모저모를 다룬다. 그 첫 번째

필독 도서 『**현대의 탄생**』을 통해서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년)의 『통치론』,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1790년)의 『국부론』, 찰스 다윈(Charles Darwin: 1809-1882년)의 『종의 기원』, 카를 마르크스(Karl Marx)의 『자본론』, 존 롤스(John Rawls: 1921-2002년)의 『정의론』 등 현대를 가능하게 했던 다양한 사상의 배경과 그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아울러 한 권의 필독 도서를 2주에 걸쳐 완독하는 계획을 통해 심층적 독서 습관도 함께 배양하고자 한다.

➤ **생각해볼 문제**

1. 저자에 따르면 이후 경제학은 애덤 스미스의 신중한 도덕을 저버리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애덤 스미스 이후 경제학이 취한 방향은 무엇이며 이와 같은 정합적 경제학의 흐름을 주도한 학자들은 누구인가?
2. “청년 헤겔”이라고 불렸던 카를 마르크스에게 있어 역사가 형성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이었으며 역사 발전의 일정한 법칙은 무엇인가? 한편, 카를 마르크스의 이러한 역사 발전사관은 현대사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또 어떤 비판을 받았나?
3. 찰스 다윈의 “적자생존”(survival of the fittest) 사상에서 파생된 우생학은 당시 유럽인들의 세계관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 파급효과는 무엇이었나? 다른 분야의 과학이론과 달리 찰스 다윈의 진화와 적자생존 이론이 지금도 일부 사회 구성원에 의해 여전히 공격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4. **[바칼로레아 발제]** 러시아의 사회학자 블라디미르 부코프스키(Vladimir Boukovsky: 1942년-현재)는 “평화란 지속적으로 인위적인 방식에 의해 유지해야 하는 인위적 상태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평등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는 평등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특권층의 권력남용과 권력계승은 모든 사회에서 발견되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불평등은 적어도 초기에는 태어나면서부터의 인간의 자연적 불평등에 기인하는가? 아울러 평등은 추상적·이념적 이상에 불과한가?

80 5월 04일 토요일(21회): 개화(BLOOMING)

09:10-10:40 Elective 1: 3D 프린터로 새 삶을 출력하다

- 담당: 이상호 (만드로 대표)
- 분야: Technology(4)
- 개요: 3D 프린터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는 자만심에 빠져 살던 만드로의 이상호 대표는 2015년 1월에 두 손을 잃은 동갑내기인 '정상에서' 님의 사연을 접하게 된다. 전자의수 한 쪽에 4천만원이나 하기에 살 돈이 없어 포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접한 그는, 생애 처음으로 전자의수를 만들기 시작한다. 2주 동안 '정상에서' 님에게 첫 번째 전자의수를 만들어 드리는 과정에서 다수의 절단장애인 분들과 그들의 어려운 삶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단 한 명을 위했던 재능기부를 보다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 생각해볼 문제
 1. 내 삶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
 2. 그 목표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목표인가?
 3.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4. 다른 사람들에게 이로운 일이나 도움이 되는 일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5. 마지막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6. 새로운 시대가 온다면(4차 산업혁명) 무엇을 잘 하는 사람이 되면 좋을까?

11:00-12:30 Elective 2: Business Case 세번째 발표 - Digital Disruption (1)

- 담당: 윤세웅 (자양라이프아카데미 교장)
- 개요: 케이스 스터디 다섯번째 시간은 본격적으로 digital disruption에 관한 비즈니스 케이스를 다뤄보십시오. 디지털 파괴란 "최신의 디지털 기술이나 ICT에 따른 혁신을 통해 일어나는 파괴적 변혁입니다. 우버로 인해 택시업계가 존폐의 위기를, Airbnb 민박서비스로 인해 호텔업계가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디어 업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넷플릭스와 스포티화이를 통해서 이미 변화된 서비스(DVD와 CD)가 또다시 사라질 운명에 처했습니다. 따라서 5월에는 2번의 케이스를 집중적으로 디지털 파괴자의 케이스를 다루도록 합시다. 파괴란 말 보다는 진화(transformation)의 측면에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만드로의 이상호 대표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이면서도 충분히 수익을 보장할수 있는 비즈니스 케이스를 알아보십시오.
- 세번째 케이스 발표: 3조 _ 만나CEA 4조 _ 넷플릭스 6조 _ 카카오뱅크 8조 _ 넥슨

13:30-15:00 대립토론 운영안내

3분 스피치 - 내가 생각하는 바른인재란? (2명) / "청결" 덕목 (2명)

15:00-18:00 **Module: 현대의 정체 - 지금의 세계를 만든 결정적 아이디어**

- 담당: 유성환 (자양라이프아카데미 담임)
- 필독도서
스콧 몽고메리 외, 『현대의 탄생』 (2018) 책세상 (5장-결론)
- 개요: 자양라이프아카데미의 역사와 철학 모듈은 앎을 통한 자아의 확장이다. 지식의 증대는 단순히 개인의 역량 강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은폐되어 왔던 불합리한 요소를 그 공고한 보호색으로부터 구별해낼 수 있는 비판적인 안목을 배양하는 데 있다. 라이프아카데미의 네 번째 테마 **개화(BLOOMING)**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이모저모를 다룬다. 그 첫 번째 필독 도서 『**현대의 탄생**』을 통해서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년)의 『통치론』,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1790년)의 『국부론』, 찰스 다윈(Charles Darwin: 1809-1882년)의 『종의 기원』, 카를 마르크스(Karl Marx)의 『자본론』, 존 롤스(John Rawls: 1921-2002년)의 『정의론』 등 현대를 가능하게 했던 다양한 사상의 배경과 그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아울러 한 권의 필독 도서를 2주에 걸쳐 완독하는 기획을 통해 심층적 독서 습관도 함께 배양하고자 한다.
- 생각해볼 문제
 1. 저자가 설명하는 파시즘의 지적 뿌리는 무엇이며 그 반지성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들에서 열성적인 추종자를 가질 수 있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한편, 파시즘의 발호는 현대사에서 어떻게 표출되었으며 어떤 상태로 계승되었나?
 2. 또 다른 반이성주의 운동이라 할 수 있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근본주의가 출현하고 또 대중의 공감을 얻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계몽주의를 비롯한 이성의 기획이 실패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은 무엇일까?
 3. 저자는 현대 사회의 형성에 기여한 가장 강력하고 논쟁적인 사상에 대한 고찰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인문학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저자가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때 저자가 생각하는 인문학의 핵심적 측면이란 무엇인가?
 4. **[바칼로레아 발제]** 플라톤 이후 진리에 대한 예찬은 수없이 존재했다. 그러나 진리는 어떤 달콤한 환상을 넘어설 때만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는 거추장스럽고 때로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진리가 우리가 익숙한 보편적 사고의 틀과 상식을 깨고 지적 안일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진리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 진리 대신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환상을 좇아도 좋은가?

☞ **5월 11일 토요일(22회): 개화(BLOOMING)**

09:10-12:30 **Business Case 세번째 발표 - Digital Disruption (2)**

- 담당: 윤세웅 (자양라이프아카데미 교장), 유경호 (체리쉬 대표)
- 개요: 케이스 스터디 다섯번째 시간은 본격적으로 digital disruption에 관한 비즈니스 케이스를 다뤄보십시오. 디지털 파괴란 "최신의 디지털 기술이나 ICT에 따른 혁신을 통해 일어나는 파괴적 변혁입니다. 우버로 인해 택시업계가 존폐의 위기를, Airbnb 민박서비스로 인해 호텔업계

가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디어 업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를 통해서 이미 변화된 서비스(DVD와 CD)가 또다시 사라질 운명에 처했습니다. 따라서 5월에는 2번의 케이스를 집중적으로 디지털 파괴자의 케이스를 다루도록 합시다. 파괴란 말 보다는 진화(transformation)의 측면에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변화하기 매우 힘든 가구업계에 서도 AI 와 digital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성공하고 있는 "체리쉬" 가구의 유경호 대표를 초대 합니다.

- 세번째 케이스 발표: 1조 _ 배달의민족 2조 _ Spotify 5조 _ 쿠팡 7조 _ ADAS-LiDAR

13:30-18:00 대립토론 체험하기

- 담당: 유성환 (자양라이프아카데미 담임)
- 개요: 대립토론(Debating)이란? 웨스트 영영사전에 의하면 A discussion or argument carried on between two matched side according to fixed rules. 이를 번역하면 ‘토론이나 논쟁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상반되는 입장을 가진 두 팀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즉 정해진 규칙에 따라 대립하는 2팀이 벌리는 말로하는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들이 말하는 토론은 토의(discussion)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찬성, 반대의 대항하는 2조로 나누지도 않고, 정해진 순서, 시간이나 제한과 같은 일정한 규칙도 없다.

대립토론의 6가지 요건은 1. 하나의 안건(토론의 주제)을 가지고 2. 대항하는 두 팀으로 나누어 3. 일정한 규칙(인원수, 시간, 진행방법, 심사방법 등)에 따라 토론하고 4. 심문과정을 거치며 5. 토론이 끝나면 승패를 결정하게 되는 말로 하는 게임이다. 6. 목적은 진리탐구, 의사결정, 문제해 결이다.

대립토론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는 능력은 1. 여러 가지 각도로 사물을 보는 능력 2. 반대 입장에서 상대방을 탐지하는 능력 3. 논리적 사고력 4. 자료 수집 분석 능력 5. 설득력 6. 감정 조절 능력 등이다.

이번 체험대회를 통해 대립토론의 방식을 익히고 향후 모듈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대립토론 안건
 1.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찬성하는가?
 2. 대학 기여입학제에 대해 찬성하는가?

☞ 5월 18일 토요일(23회): 개화(BLOOMING)

09:10-10:40 Elective 1: 기업가정신과 창업 프로세스

- 담당: 조성주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 분야: Business(3)
- 개요: 기업가정신은 기회를 찾아 실행하는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업은 기업가정신의 대표적

인 발현 과정이며 삶의 방향성에서 생각해 봐야 할 주제입니다. 최근의 창업 프로세스는 예전과 다르게 '린(lean) 스타트업' 개념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를 사업화하는 프로세스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 **생각해볼 문제**

1. 여러분은 하고 싶은 일을 명확히 가지고 있습니까?
2.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3. 창업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4. 에어비앤비, 우버, 배달의 민족 같은 사업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11:00-12:30 **Elective 2: Marketing & Career Development**

- 담당: 전원태 (한국맥도널드 상무)
- 분야: Career(6)

13:30-14:00 **3분 스피치 - 내가 생각하는 바른인재란? (2명) / “친절” 덕목 (2명)**

14:00-18:00 **Module: 양차세계대전 - 계몽주의의 파산·제국주의의 자멸**

- 담당: 유성환 (자양라이프아카데미 담임)

➤ **필독도서**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시형 옮김 (2005) 청아출판사 _ 전자책

- **개요:** 자양라이프아카데미의 역사와 철학 모듈은 앎을 통한 자아의 확장이다. 지식의 증대는 단순히 개인의 역량 강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은폐되어 왔던 불합리한 요소를 그 공고한 보호색으로부터 구별해낼 수 있는 비판적인 안목을 배양하는 데 있다. 라이프아카데미의 네 번째 테마 **개화(BLOOMING)**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이모저모를 다룬다. 현대의 여명기, 전 지구로 팽창해 가던 서구 제국들은 20세기 들어와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급격하게 몰락한다. 제국들의 지나친 경쟁의 결과 1차 대전이 발생하고 전쟁에 대한 환멸과 공포에도 불구하고 20년 후에 다시 제 2차 대전이 발발한다. 이 과정에서 근대 서구의 특징이라 여겨졌던 자유주의는 파시즘에게 자리를 내주고 홀로코스트라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다. **개화(BLOOMING)**의 두 번째 필독 도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전체주의가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었을 때의 참상을 담담하게 기술한다.

➤ **생각해볼 문제**

1. 정신과 의사인 저자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이 정서와 감정의 둔화, 즉 무감각을 경험한다고 증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소의 수감자들이 모욕감과 동지애를 느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존엄성은 폭력이나 죽음에 대항할 만큼 중요한 감정인가?
2. 모든 제국주의 체제가 그렇게 폭력적인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제국주의와 같은 다극적 시스템의 폭주는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
3. 600만 명의 희생자를 낸 홀로코스트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여기에 참여했던 일반 국민들은 단지 국가의 명령을 따랐던 것인가? 그렇다면 파시즘은 어

떻게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

4. 계몽주의자들이 그렇게 칭송했던 서구의 근대는 어떻게 파국으로 치달게 되었는가? 서구 제국주의 시대 이후 재편된 세계의 모습은 제국주의의 모순을 극복하였나 아니면 더욱 심화시켰나?
5. **[바칼로레아 발제]** 미국의 역사학자 칼 베커(Carl Becker: 1873-1945년)는 “역사의 진정한 가치는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것에 있다. 따라서 역사는 하나의 윤리과학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라는 주장은 정당한가? 현재 일어나는 사건들을 정당하게 평가해 줄 세상의 재판소로서의 미래를 믿는 것은 허황된 꿈이 아닐까?

☞ 5월 25일 토요일(24회): 개화(BLOOMING)

09:10-10:40 Elective 1: 오래가는 것들의 비밀

- 담당: 이랑주 (Brand V.LAB 대표)
- 분야: Career(7)
- 참고도서
이랑주, 『오래가는 것들의 비밀』, (2019) 지와인
- 개요: 사람들의 무의식에까지 스며드는 오래 사랑받는 것들의 비밀은 무엇일까? 한때는 사람들이 열광하던 것이었으나, 그 열광이 반짝하고 끝나는 것들이 있고, 몇 년, 몇 십 년이 지나도 계속 사랑받는 것들이 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계속 ‘좋다’고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100년 된 명품부터 1000년이 된 전통시장까지, 오래 사랑받는 것들을 살펴보면 사람들의 무의식까지 스며드는 자기만의 고유한 이미지가 있다. 사람들의 기억에 촘촘히 스며들어, 새로운 세대까지 열광시키는 놀라운 비주얼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 생각해볼 문제
 1. 어떻게 나만의 가치에 집중할 것인가?
 2. 어떻게 그 가치를 보여줄 자기만의 이미지를 만들 것인가?
 3. 어떻게 그 이미지를 잘 전달할 것인가?

11:00-12:30 Elective 2: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법조인

- 담당: 가정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국 변호사)
- 분야: Career(8)
- 개요:
 1. 왜 사법시험이 아닌 변호사시험인가?
 - 1) 사법시험 vs 변호사시험 = 법학전공자 vs 법학이중전공자
 - 2) 시험을 통한 인재 양성 vs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 3) 과도한 시험준비와 사회적 비용
 2. 어떠한 법조인이 훌륭한 법조인인가?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법조인
 - 1) 제4차산업혁명은 융합형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 2) 융합형 인재란 무엇인가?
- 3) 예로써 법경제학
3. 법조인의 활동영역이 다양해지면 이에 요구되는 덕목도 다양해지는가?
 - 1) 판사 = 중립성
 - 2) 검사 = 공정성
 - 3) 변호사 = 고객에 대한 이해
 - 4) 사내변호사 = Leadership
4. 사법부의 순혈주의는 무엇이며 그것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1) 현재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구성원들의 대학과 전공은? 독과점의 폐해는?
5. 서비스업으로써 법률서비스업이란?

- **생각해볼 문제:** World Bank 총재와 Ivy League 중 하나인 Dartmouth 대학의 총장을 역임한 한국계 김용 박사의 학부 전공은 무엇이었나요? 왜 오바마 대통령은 이러한 전공자에게 World Bank 총재를 맡겼고 Dartmouth 대학의 재단위원회는 이러한 전공자에게 대학 총장을 부탁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당신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생각해 보세요.
- **간단한 과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설립 과정을 Research해 오세요. 만약 당신이 법학전문 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다면 이러한 종류의 재단 변호사가 되고 싶은지 여부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준비해 주세요.

13:30-14:00 **3분 스피치 - 내가 생각하는 바른인재란? (2명) / “관용” 덕목 (2명)**

14:00-18:00 **Module: 대한민국의 성립 - "나라 만들기"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한국 근대사**

- **담당:** 유성환 (자양라이프아카데미 담임)
- **필독도서**
이영훈, 『대한민국 역사』, (2007) 기파랑 (1-3장)
- **개요:** 자양라이프아카데미의 네 번째 테마 **개화(BLOOMING)**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이모저모를 다룬다. 제 2차 대전 후 세계는 새로운 두 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의 대립으로 재편되고 구 제국주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새롭게 독립한 수 많은 국가들은 국가 형성 및 경제 발전이라는 쉽지 않는 과제를 안게 된다. **개화(BLOOMING)**의 네 번째 필독 도서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대한민국의 성립 과정과 한국의 근대사를 “나라 만들기”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아울러 『**현대의 탄생**』과 마찬가지로 한 권의 필독 도서를 2주에 걸쳐 완독하는 기획을 통해 심층적 독서 습관도 함께 배양하고자 한다.
- **대립토론 주제:** 해방 및 한국전쟁 이후 극심한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서도 남북한 모두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체제를 강조하면서 구성원의 결집을 도모했다. 1960년까지 한국에는 한민족 혹은 “백의민족”이라는 신성한 자부심에 근거한 민족주의가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현재 민족주의는 극복해야 할 과거 국민국가의 유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일본 및 중국과 같은 한반도 주변국은 민족주의를 정권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북한 역시 민족이라는

개념을 체제의 선전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저자는 민족주의를 “우리의 소중한 공동체 정서”로 규정한다. 그렇다면 민족주의는 여전히 국가의 발전과 단합을 위해 함께 가꾸어야 할 바람직한 정서인가, 아니면 이제는 극복되어야 할 과거의 유산에 불과한가?

➤ **생각해볼 문제**

1. 제 2 차 세계대전 중 미국과 소련이 합의한 한국 방침은 무엇이었으며 이들 연합국이 한국이 다른 두 체제의 국가로 분열될 가능성을 감수한 이유는 무엇일까? 승전국의 한국 방침이 초래한 결과 발발한 한국전쟁이 근대사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2. 저자가 파악하고 설명하는 각 시대적 한계, 그 중에서 1950년대의 한계는 무엇인가 1950년대의 한계는 1960대 이후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극복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만일 충분히 극복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또 무엇이고 현 상황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극복 방안은 무엇인가?
3. 한국과 주변 강대국에 의해 조성되는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도 북한과의 공존과 협력의 방법을 조심스럽게 모색하고 있다. 한국전쟁이라는 미증유의 내분 이후 북한에 대한 한국 내부의 인식과 태도는 어떤 변화를 거쳤는가? 한국전쟁은 여전히 남북관계에 지울 수 없는 상흔으로 남아 있는가? 아니면 미래에는 극복 가능한 역사적 사건으로 재평가 받고 있는가?

☞ 6월 01일 토요일(25회): 개화(BLOOMING)

09:10-10:40 Elective 1: 하나의 지구에서 살아남기

- 담당: 윤세웅 (자양라이프아카데미 교장)
- 분야: 인성(5)
- 개요: 오늘은 지구가 직면한 현실에 대해서 환경과 과학적 관점에서 공부합니다. 1) 요즘 점점 심각해지는 플라스틱의 현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행동 수칙들, 2) 탄소 발자국이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 행동의 예, 그리고 지구 온난화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리고 3) 지난 50년간 지구에서 살아가는 척추동물의 62프로가 멸종한 가운데 생태다양성 확보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고 토론을 한다.

11:00-12:30 Elective 2: Future Mobility

- 담당: 표현명 (롯데렌탈 고문, 전 KT 및 롯데렌탈 대표이사)
- 분야: Technology(6)
- 개요: 스마트시대를 넘어 ICBM시대! 4차 산업혁명, 명사에서 동사시대로, Mobility, 미래 자동차 혁명,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차량공유, 스마트카, Smart Mobility 등 앞으로의 모빌리티 시장에 대해 함께 고민해 봅시다.
- 생각해볼 문제: 과연 스마트폰의 성공사례가 스마트카에서도 일어날 것인가? 미래자동차시장에서 전기차(EV)가 주력이 될까? 자율주행차의 미래는? 스마트카 생태계의 진정한 승자는?

13:30-14:00 3분 스피치 - 내가 생각하는 바른인재란? (2명) / “용기” 덕목 (2명)

14:00-18:00 Module: 대한민국의 성립 - "나라 만들기"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한국 근대사

- 담당: 유성환 (자양라이프아카데미 담임)
- 필독도서
이영훈, 『대한민국 역사』, (2007) 기파랑 (4-7장)
- 개요: 자양라이프아카데미의 네 번째 테마 **개화(BLOOMING)**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이모저모를 다룬다. 제 2차 대전 후 세계는 새로운 두 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의 대립으로 재편되고 구 제국주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새롭게 독립한 수많은 국가들은 국가 형성 및 경제 발전이라는 쉽지 않는 과제를 안게 된다. **개화(BLOOMING)**의 네 번째 필독 도서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대한민국의 성립 과정과 한국의 근대사를 “나라 만들기”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아울러 『**현대의 탄생**』과 마찬가지로 한 권의 필독 도서를 2주에 걸쳐 완독하는 기획을 통해 심층적 독서 습관도 함께 배양하고자 한다.
- 대립토론 주제: 1960년대에 부정된 대중 경제론과 대중 민주주의는 경직된 권위주의 체제의 붕괴를 초래하였다. 철차적 민주주의 체제를 넘어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를 모색하는 오늘날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담론으로서 대중 민주주의를 대체한다고 자부하는 시민 민주주의는 이름만 다를 뿐 “대중” 혹은 “시민”에 호소하여 동의를 기반을 구축하지만 실제로는 대중 혹은 시민의 자유와 정치참여, 인권과 정의를 억압하는 새로운 포퓰리즘(populism)의 형태는 아닌가?

➤ **생각해볼 문제**

1. 책을 읽는 과정에서 혹은 읽은 후 본인이 제기하고 싶은 질문 등을 이유-문제제기-결론의 구조로 인용·요약·비평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도입-문제제기-결론 등 하나의 완결된 텍스트 구조로 정리 혹은 제시해보자.
2. 저자가 파악하고 설명하는 각 시대적 한계, 특히 1960년대, 그리고 1970년대와 1980년대의 한계는 무엇이며 아울러 이들 시대로 표상되는 “시대적 욕망”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 이전 시대의 한계는 다음 시대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극복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만일 충분히 극복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또 무엇이고 현 상황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극복 방안은 무엇인가? 아울러 각 시대가 가졌던 “시대적 욕망”은 무난히 충족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이와 같은 “시대적 욕망”이 현대 사회에 남긴 그림자는 무엇일까?
3. 1997년 IMF의 구제금융으로 이어진 한국의 경제위기의 배후에는 아시아의 통화위기가 있었다. 당시 아시아 통화가 붕괴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고 이와 같은 경제위기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였나? 아울러 이와 같은 위기의 역사는 현재 우리의 상황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는가?
4. “미래는 오래된 과거”라는 말이 있다. 현재는 과거의 산물로서 형성된 것이며 미래는 현재의 연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저자의 작업과 같이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는 역사를 기술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80 **6월 08일 토요일(26회): 미래(FUTURE)**

09:10-10:40 **Elective 1: 재료를 경청하는 새로운 방법**

- 담당: 이희준 (참기름 소믈리에)
- 분야: Career(9)
- 개요:
 - 1) 당신의 소셜미션은 무엇입니까?
 - 2) 푸드샵스크립션 서비스에 대한 소개: 쿠키트 사례
 - 3) 국내외 전통시장에 대한 이해: 전통시장 역사/상인/상품 사례
 - 4) 식문화 기반 동네 커뮤니티 공간 소개: 연남방앗간 사례
- 생각해볼 문제
 - 1) 대학 생활 동안 내가 풀고 싶은 문제는 무엇인가요? (문제 정의)

11:00-12:30 **Elective 2: E-Commerce**

- 담당: 추연진 (레이틀리 대표)
- 분야: Business(4)
- 개요: 포항공대와 Carnegie Mellon 대학에서 E-Business를 전공하고 실리콘밸리(Zappos, Home Depot) 등 해외에서 이커머스 분야에 프로덕트매니저(PM)로 탄탄한 실무경험을 통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여 비즈니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젊은 CEO와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대한민국 E-Commerce 시장의 역사와 흐름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미국 스타트업 비즈니스 경험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3:30-15:00 강점코칭 공유회 및 Dance에 대하여 _ 윤여순 코칭 및 예술 선생님

15:00-18:00 Module: 우리의 미래 - 한반도 구성원들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미래전략

- 담당: 유성환 (자양라이프아카데미 담임)
- 필독도서
이춘근, 『격동의 동북아 정세와 대한민국: 흥망의 갈림길에 서다』 (2015) 일곡문고 35-15
- 개요: 자양라이프아카데미의 다섯 번째 테마 **미래(FUTURE)**에서는 역사와 철학, 예술과 과학을 통해 습득된 인문학적 안목을 바탕으로 당대를 넘어선 미래 예측을 시도하고자 한다. 인류에게 아직 희망은 남아 있는가? 이제 문학·역사·철학·종교·과학·예술을 아우르는 통섭적 시각을 통해 과거를 점검하고 인류의 미래를 조망하고자 한다. 인류 문명을 지탱하고 역사를 역동적으로 추동 시켰던 동인들은 인류라는 종을 유례 없는 성공으로 이끌었지만 바로 그 성공의 요인들이 종의 절멸을 이끌 수도 있다. 기술의 발달에 의해 실현 가능해진 욕망과 생명윤리 간의 균형점은 인간을 규정하고 기술의 폭주를 막는 데 필수적이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고 또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가? 네 번째 필독 도서 『격동의 동북아 정세와 대한민국: 흥망의 갈림길에 서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세계사적 흐름을 바탕으로 한반도 구성원들의 미래를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패널토론 학생발제 주제: 한반도의 통일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역사적 사건들은 무엇일까? 아울러 그와 같은 사건들을 고려할 때 한반도 구성원들 모두에게 가장 유리한 통일 방안은 무엇이 될까?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패널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이슈를 하나 이상 제시하고 해당 이슈를 선정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보자.
- 생각해볼 문제
 1. 저자가 국가 안보를 비관론에 근거해야 한다고 설파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아울러 저자가 생각하는 “무서운 나라”의 기준과 “민주주의적 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의 타당성은 무엇인가?
 2.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무엇이며 이는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가? 또한 일본의 우경화의 실체는 무엇이고 그 파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3.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강대국들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될 수 있으며 저자의 견해에 덧붙여 냉철한 국제정치 감각을 바탕으로 한국이 동북아 안보의 린치핀(linchpin)으로서 생존과 번영을 위해 미래에 취해야 할 방안에는 추가적으로 무엇을 제안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4. **[바칼로레아 발제]** 인류의 역사가 투쟁과 전쟁의 역사라고 하지만 인류가 평화를 갈구하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하다. 그러나 평화라고 해서 모든 평화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잘못 구성된, 그리고 불의를 기본으로 하는 평화가 과연 오래갈 수 있는가? 이런 평화란 오히려 새로운 분쟁을 몰고 오지 않을까?

88 6월 15일 토요일(27회): 미래(FUTURE)

09:10-10:40 Elective 1: 카카오뱅크 이야기

- 담당: 김주원 (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 카카오뱅크 이사회 의장)
- 분야: Technology(7)
- 개요: 카뱅은 오픈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서 고객 수 1000만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러한 실적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은행을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면서 기업문화를 만들어가는지, 기존의 은행과 차별화를 위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은행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등을 설명하고 카카오뱅크의 biz model과 현재와 미래의 비전을 살펴보고 카뱅의 value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상해 본다.
- 간단한 과제
 1. 각자가 카카오뱅크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해보고 불편한 점 한가지씩 이야기해보기.
- 강의를 듣고 생각해볼 문제
 1. 카카오뱅크에 2년이 채 안된 기간에 거의 1000만에 육박하는 고객이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
 2. 각기 다른 기업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카뱅에 모여 어떻게 통합을 이루어 가고 있나?
 3. 금융에 fun요소와 social요소를 도입한다는게 무슨 의미일까?
 4. 플랫폼사업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biz를 전개해 나가나?

11:00-12:30 Elective 2: 방송을 활용한 사회공헌 - EBS나눔0700 프로그램 사례를 통해

- 담당: 정경란 (EBS나눔0700 프로그램 CP)
- 분야: 인성(6)
- 개요: 우리는 왜 동시대를 살아가는 취약계층의 삶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걸까? EBS 나눔 0700 프로그램 제작과정을 살펴보면서 방송이라는 매체가 어떤 식으로 취약계층의 위기에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모금방송 제작자로서 느끼는 보람과 고충은 무엇인지 들어본다.
- 간단한 과제: 모금방송 시청 또는 포털의 온라인 모금함 검색
EBS 나눔0700 (EBS 매주 토 오후 2시30분 방송)
네이버 해피빈 <https://happybean.naver.com>
카카오같이가지 <https://together.kakao.com>

13:30-14:30 3분 스피치 - 내가 생각하는 바른인재란? (2명) / “존중” 덕목 (2명)
동료수업 - 강민성 (PPT 있어 보이게 만드는 법)

14:30-18:00 Module: 전환기 인류의 미래 - 더 나은 오늘은 어떻게 가능한가?

- 담당: 유성환 (자양라이프아카데미 담임)
- 필독도서
마이클 샌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안기순 옮김 (2012) 와이즈베리

➤ 개요: 자양라이프아카데미의 다섯 번째 테마 **미래(FUTURE)**에서는 역사와 철학, 예술과 과학을 통해 습득된 인문학적 안목을 바탕으로 당대를 넘어선 미래 예측을 시도하고자 한다. 인류에게 아직 희망은 남아 있는가? 이제 문학·역사·철학·종교·과학·예술을 아우르는 통섭적 시각을 통해 과거를 점검하고 인류의 미래를 조망하고자 한다. 인류 문명을 지탱하고 역사를 역동적으로 추동 시켰던 동인들은 인류라는 종을 유례 없는 성공으로 이끌었지만 바로 그 성공의 요인들이 종의 절멸을 이끌 수도 있다. 기술의 발달에 의해 실현 가능해진 욕망과 생명윤리 간의 균형점은 인간을 규정하고 기술의 폭주를 막는 데 필수적이다. 시장의 진입·개입·확산으로 과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가치의 재정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것을 돈을 환산하고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시장 메커니즘은 필연적으로 도덕의 붕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가? 세 번째 필독 도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통해 우리가 이 절박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차례다.

➤ 대립토론 주제

1. (1조)(3조)(5조)

공항 보안검색대를 빨리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패스트 트랙’ 서비스, 고속도로의 급행 통행권 서비스, 공연 입장권 구매 혹은 획득을 위한 ‘라인 스탠더’ 서비스 등과 같이 좀 더 빠른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시간을 절약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를 위한 대리 줄서기 서비스는 경제적 효용을 높이는 거래 행위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불평등을 확대하는 불공평한 권리 침해인가? 대리 줄서기 서비스에 찬성 혹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2조)(4조)(6조)(7조)

감정의 영역에 해당하는 사랑 혹은 우정에 시장논리가 개입된다면 어떤 문제가 야기될까? 재력이 개인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면 결국 사랑 혹은 우정 역시 돈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공감·관용·배려와 같은 규범이 시장가치에 의해 장려될 수는 없는가?

➤ 생각해볼 문제

1. 진보는 정말 좋은 것인가? 진보가 결국 예기치 않은 파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보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종적 한계 때문인가? 비약적인 기술적 진보는 마침내 인간의 예측을 벗어나 폭주할 것인가?

2. **[바칼로레아 발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기원전 384-322년)는 노예제도의 지속적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것이 사라질 조건을 “베틀이 혼자 베를 짤 수 있을 때면 없어도 좋으리라”고 (불가능한 듯) 비꼬며 말한다. 우리는 이제 베틀이 ‘혼자’ 베를 짤 수 있게 되었고 노예제도가 사라졌음을 안다. 기술적 진보가 분명 유일한 원인은 아닐 테지만 부분적으로는 그것을 유발했다. 그렇다면 기술이 일부 인류의 환경만이 아니라 인간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80 6월 29일 토요일(28회): 코다(CODA)

09:10-12:30 Biz Case Study - "Something New"

- 담당: 윤세웅 교장, 권희민 선생님, 장진원 (한영회계법인 부회장)
- 분야: Business(5)
- 개요: 비즈니스 케이스 스터디의 마지막 주제는 “創業”입니다. 재무교육 및 3차례의 산업별 기업분석, 그리고 과학에서의 “세상에 없는 것들 만들어보기 프로젝트”의 4단계를 거쳐 고대부터 미래까지 책을 통한 세상 “Module”과 현재 각 분야의 현실과 흐름 Real Learning “Electives”를 통해 여러분들의 다양한 상상이 비즈니스 모델 수립(창업)과 더불어 스스로 과제와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설정하는 능력, 가설을 세우는 능력을 발휘하길 바랍니다.

자양라이프아카데미 수련생의 다짐

첫째, 나는 다양한 지식을 통해 통찰력을 길러 지혜롭게 행동하며, 지식인에 머물지 않고 실천하는 지행일치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 수 없고 서로 협력하며 살아야 함을 깨닫고 이기심뿐 아니라 이타심도 함께 갖는 자세로 살아가겠습니다.

셋째, 모든 창조는 융복합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여, 유연한 사고방식과 다른 사람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추구하여 협력하는 자세를 견지하겠습니다.

넷째, 내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다는 각오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내 존재가 주위에도 향후 여러분보탬이 되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여정과 커리어를 응원하며 어느 곳에서든 주체적인 하이퍼포머의 삶을 기대하겠습니다.

13:30-18:00 Module: 코다 - 지속 가능한 학습을 위하여

- 담당: 유성환 (자양라이프아카데미 담임)
- 개요: 자양라이프아카데미의 모듈 프로그램은 인류 문명사 전체를 자유롭게 줌-인·줌-아웃할 수 있는 “빅 히스토리의” 시선을 통해 현대 문명이 당연하게 여겼던 수많은 제도와 도구, 발명품들을 낯설게 봄으로써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이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독자적인 시선을 배양하는 한편, 한국 사회에 오랫동안 은폐되어 왔던 불합리한 요소를 그 공고한 보호색으로부터 구별해 낼 수 있는 비판적인 안목을 배양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건전한 공동체 원리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제 모듈의 모든 과정을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코다 시간에는 통해 지금까지의 지적 성장을 자양라이프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스스로 어떻게 지속시켜 나갈 것인가를 각자 생각하고 발표하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한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김영민 교수는 자신의 저서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에서 “성장한다는 것”을 “주변과 자신의 비율이 변화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성장을 “익숙하지만 이제는 지나치게 작아져 버린 세계를 떠나는 여행”에 비유했다. 자양 라이프아카데미를 마무리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훌쩍 커져버린 지적 능력과 지혜·삶과 사회를 바라보는 달라진 시선을 실감하면서 모듈 프로그램이 끝나도 계속될 나만의 지적 여행을 어떤 방법으로 전개하고 유지하면 좋을지 고민해보고 이 과정에서 떠오른 소감이나 예상·각오와 계획들을 동기들과 공유해보자.